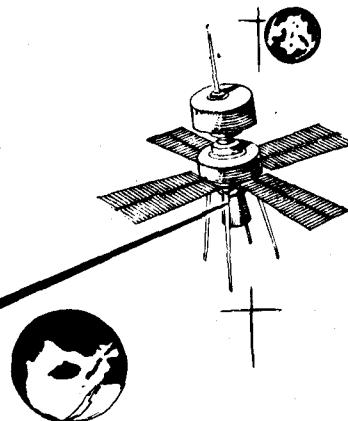


양계 안데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축산인의 청와대 방문

축산인 40명이 6월 14일(수) 청와대를 방문 노태우 대통령과 오찬을 나누며 축산업의 어려운 현안문제를 얘기하고 축산발전의 비전을 논의했다.

본회 정태원 회장과 부회장, 고문,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등 양계인 7명과 양돈·낙농육우협회, 사료, 동물약품, 수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확대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축산업의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농촌이 잘사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기본방침이며 철학」이라고 밝히고 축산인들은 성급해 하지 말고 인내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에 대한 축산인들 요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방문단은 이번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한목소리로

국제경쟁상대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사료곡물, 약품, 축산기자재 등의 관세부담의 경감과 축산물 생산원자재에 부가되는 부가세부담의 폐지와 대체육으로 양계, 양돈 업계 불황을 부추기는 쌓값의 수입쇠고기 방출의 재고, 도축장,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합리화, 자급도 설정·수입억제에 의한 한우 번식기반 조성책 건의, 군·학교 급식확대로 우유공급 지원, 수급조절상 축산물제조업 허가권을 보사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 사료원료 수급안정과 생산원가 절감 위한 사료용 대맥 수입허용, 과다수입 우려와 국민보건향상 위협에 대비한 축산물 수입검사제도 강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산업화 이후 국가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것이 축산발전 비전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농정은 증산, 수급원활, 가격안정이 최대과제로 농민소득의 증가는 구호로만 그친감이 있으며 주로 성장지향의 도시생활 물가안정에 농정이 행해졌던 것이 사실로 최근까지도 고추파동, 수세납부 거부, 소값 폭락·폭등이 이를 대변한다 하겠다.

이번 축산인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실질적인 농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농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단기적 가격대책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한 국회와 여론주도 기관의 안이함 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농업부흥의 대책이 펴지기를 기대한다.

농민이 더이상의 국가성장의 답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중추농장 합리적관리가 필요해

중추전문농장이 늘고 있다.

작년 하반기 긴 불황의 터널 끝에 모처럼 채란농가는 제값을 받게 되었고 2~3년 동안 누적된 밀린 빚을 갚게 되었다. 많은 동업자들이 농장을 떠난 후 닦수자는 격감했다. 계란의 생산이 줄었고 신규입식이 늘기시작한데 반해 병아리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추농장의 인기가 높아졌다.

불티나개 팔리는 중추를 공급하기위해 너도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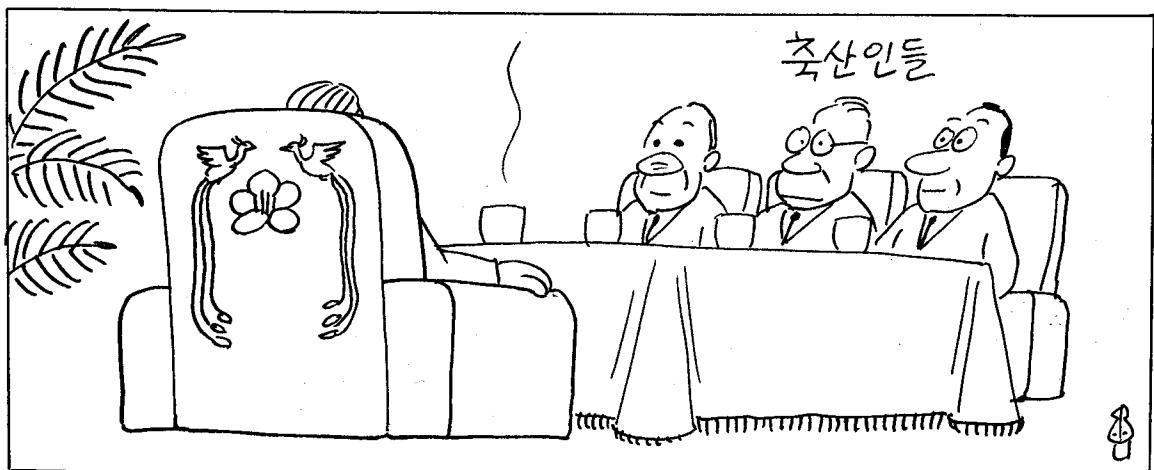
중추사육을 시작하였다. 일부 농장의 사기(?)에 가까운 방만한 경영으로 농장피해도 많았다. 비위생적인 계사에서 무계획적인 입추, 예방접종의 불성실, 병아리 일령의 정확성 결여, 믿을 수 있는 계통 보증서 사양기록부 등이 없이 유통되는 등 심심치않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도가 높은 중추 전문사육농장의 숫자도 점차 늘고있는 추세이다.

농장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계사의 가용면적 확보, 자금회전의 용이 등의 이유로 육성 산란과정을 전문화하여 경영상 이익이 많아 오래전부터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중추사육이 보편화 되었다. 특히 유수한 종계장에서 자사 생산병아리를 중추로 육성해 산란직전 산란농장에 공급하는 예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산란계농장에서도 점차 중추구매를 선호하고 있는데 차제에 월드에서 지적되는 일부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주문한 품종의 정확성이 없다. 선호하는 A 품종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B 품종을 A라고 보내주는 예가 있어 이의 불만을 토하는 양축가가 있는가 하면 70일령 닭을 주문했는데 65~66일령을 보낸다든가 60일령도 안된 닭을 판매하는 예도 있고 질병예방 프로그램(백신접종)의 미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농장이 있다.



철저한 주문(계약) 사육으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종구분을 위하여 부화장에서 C/C 출하시 품종별로 발가락을 구분되게 잘라서 출하하는 것은 어떨까? (발가락 순서별로 6개품종 구분이 용이—예, A종은 오른쪽 첫번째 발가락 절단) 공인된 육추일지를 기록하여 중추농장에서 산란농장으로 이동시 함께 보내는 것도 좋겠다. 품종·일령·예방접종·점등 관리실태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육추사양일지는 양계협회 전문부서나(채란분과위원회), 학계 연구계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산란 농장의 일이 많이 줄어질 수도 있겠다. 국가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이용 뿐만아니라 농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얼굴있는 양계산물

신뢰하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도 생산자의 상표를 부착해 출하하고 있다.

「인격을 건 품질보증」을 내세워 생산농민 자신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산지농협조합장 직인까지 찍힌 스티커를 부착한 경북 달성군 하빈농협 출하 수박이 소비자, 유통상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얼굴있는 수박은 제작비 20원 상당의 생산농민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시장에 내는데, 신뢰도에서 타지 생산 수박보다도 높아 개당 5백 원 이상을 더 받으면서도 농협 청량리 공판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한다.

농산물에 상표를 붙인다는 것이 생소하지는 않지만 메이커를 선호하는 우리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생산농민의 책임과 믿고 살 수 있다는 신뢰감에서 소비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쉽게 사게된다 한다.

소비자 구매형태가 엄격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된일이지만, 땀을 들여 애정을 갖고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상표부착은 소비자에게 철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며 엄격한 품질관리가 행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비위생적으로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계란, 닭고기가 상품성 높은 위생적인 상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좋은 상품을 생산 공급해야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는 없다하겠다.

지역별로, 계우회별로, 조합별로 또는 농장별로 계란에 고유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단위별로 책임있는 상표를 붙여 유통시킨다면 앞서 가는 소비자들의 의식에 부응해 빠른기간내에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다.

‘○○농장의 계란주세요’ ‘△△농장의 닭 주세요’ ‘××상표 닭고기 주세요’가 빠른 시간내에 유통시장에서 통용되기를 희망한다. 생산자·유통상인 모두가 소비자를 의식해 위생적인 상품성이 높은 산물을 공급하는 책임의식 속에 산업의 장래가 달려있다.

국제화시대 수입개방을 위한 값싼 외국산 닭고기·계란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그것들과 겨루어 국내산물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의 차별화이다. 신선도는 좋은 장점이 된다. 신선한 닭고기, 오늘 생산된 계란이 식탁에 곧 바로 공급될 때 냉동된 코팅된 수입품은 발을 뻗기가 어려울 것이다.

계란에 내농장의 상표를, 닭고기에 우리생산단지의 상표를, 계우회이름을, 조합장·분회장 서명을 부착하여 생산농가에게는 책임감을, 소비자들에게는 신뢰감을 주어 건전한 양계산물 유통개선과 한발 더 나가는 양계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